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4일(금)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주택도시기금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국토교통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2
  -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2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주택도시기금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2
  - 국토교통부 소관

(10시12분 개의)

○소위원장 전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 등을 요약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몇 개의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증액 의견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동의하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별도 보고 없이 자료로 대체하고 정부 측 및 위원님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말씀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나. 주택도시기금

###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13분)

○소위원장 전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청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대외유치협력 기능지원과 관련하여 그 내역사업인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소통 및 홍보 사업은 행복청의 본래 기능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억 원 감액 의견과 4억 99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는 반면,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상정 구역 조성 과정에서 공청회나 여론 수렴 등 국민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번 3번,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세종공동캠퍼스는 현재 세금 문제와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 운영상 애로가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5억 64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과 운영비 15억 65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8개의 안건 중에서 2번 대외유치협력 기능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추진을 위해서 국가상징구역 계획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한 비용으로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전용기** 예, 말씀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차장님이신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정점식 위원** 지금 이게 첫 번째 사업이지요? 신규 편성 예산이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정점식 위원** 그게 결국은 행정수도를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자체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행복청에서 하겠다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완전 이전하자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계획 수립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잖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맞습니다.

○**정점식 위원** 계획하고 건설을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걸 왜 그것까지 홍보를 하냐. 세종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정주 여건,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증진될 거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종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소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한 계획과 건설 계획 추진을 하는 행복청에서 이걸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중복 예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하고 건설 계획을 세우고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완공하면 되는 거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특히나 국가상징구역은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공간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세종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건설청에서 하냐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자치단체가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담당 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행복청이 계획을……

○**손명수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장님의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세종시 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사실은 지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에 집중돼 있는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옮기자 했는데, 진 얘기 하지 않더라도 그때 우여곡절 끝에 수도 전체를 옮기지 못했고 행정기관들 다 옮겼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다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행정 비효율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 행정 도시의 완성은 결국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다. 그런 것 맞지요, 차장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손명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어차피 세종시로 다 이관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손명수 위원** 그런데 완성되기까지의 핵심 기능이 행정수도의 완성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이것은 행정건설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완성시키는 게 국가균형발전, 우리 모두가 떠드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5억 가지고 왜 그러세요?

○**김종양 위원** 5억 5억 하다 보면 그게 수십억 돼요.

○**정점식 위원** 아니, 내가 ‘이것 가지고 왜 그러세요?’라고 말씀하기 직전까지 나왔는데 손명수 위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니 철회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손명수 위원** 취소, 속기록 삭제.

○**김종양 위원** 본래의 기능을 일탈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홍보비 넣으면……

○**손명수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니까요.

○**김종양 위원** 그것 알고는 있지. 그리고 지금 행정수도가 법률적 용어에, 임의적으로 쓰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이게?

○**소위원장 전용기** 어떻습니까?

○**손명수 위원** 행정수도는 아니고……

○**김종양 위원**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 소통 및 홍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까지 행정수도라는 그런 말을 쓰기에는 좀 이른 것 아닌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그런데 국정과제 50번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명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행정수도, 앞으로는 헌법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행정수도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김희정 위원** 저 질문 좀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홍보비를 이렇게 과다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액만큼만 감액시키자 이런 이야기지.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지 부가적인 어떤 그런 업무까지 다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명수 위원** 김종양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양해해 주셨으니까 같이 양해 좀 해서 빨리 넘어가시지요. 진행하시지요.

○**김희정 위원** 양해 안 했는데, 정점식 위원님.

○**김종양 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김희정 위원** 질문 좀 할게요.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김종양 위원 고민해 봄시다. 조금 고민해 보지요.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대체로 의견이 있는 것은 보류하고 시간 가지고, 진도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요.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상당수 중액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중액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액하는 부분도 사업의 본질에 지장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하고 있는 홍보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하고 있는 홍보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빨리 보고서 준비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국민들……

○김희정 위원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이전하려고 한다는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사실 좀 많이……

○김희정 위원 모르고 있다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김희정 위원 모르고 있다고요, 국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상징구역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 국민들께서 어떤……

○김희정 위원 국민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국가상징구역이라는 개념도 그렇고요 저희가 그냥 국회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만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워싱턴DC 내셔널……

○김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정 홍보기능으로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이나 국정홍보처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만이 가능한 홍보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세종시나 국정홍보처와 다른 홍보기능이 이 분야와 중복되는지를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추가로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서는 계속 챗바퀴니까 그걸 보고 결정하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답변 주세요. 뭐가 다릅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저희는 국가상징구역이라는 부분에 210만m<sup>2</sup>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단일 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세종 거기 방문한 적도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고유한 업무가 국회 이전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을 통한 수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 업무는 건설청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른 국가기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세종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이런 홍보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정건설청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굉장히 고유한 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동의하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더 내시고,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이견이 없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양 위원** 지금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대외유치협력 기능지원 1억 5800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맞습니다.

○**김종양 위원** 거기에도 갑자기 내년에 5억이나 특별히 추가를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갑자기 발족된 어떤 그런 기능이 돼 가지고 건설 플러스 홍보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모르지만 기준에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홍보비 5억을 갖다가 더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저희가 기준에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매년 한 1억 5800 정도의 사업비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국가상징구역이라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 이런 구역들을 조성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기획,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같이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예, 말씀하세요.

○**이연희 위원** 제 지역구가 청주시 흥덕구인데 같은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별로 말은 다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전 정부 같은 경우도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 특히 충청권에 있는 시민들은 이게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게 안 오나 이런 저기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 대선 할 때 이재명 정부의 핵심공약이 ‘행정수도 이전을 세종으로 다 완료를 하겠다, 국회세종의사당도 완공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지역구를 갖고 계신 황운하 위원은 중액 요청까지 했는데 저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중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되더라도 저는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운하 위원은 중액 요청까지 하셨는데 저는 정부 원안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부연설명……

○**이건태 위원** 저도 한말씀……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이건태 위원** 청장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차장입니다.

○**이건태 위원** 차장님이신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맞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하는 역할이 명백히 다르지 않습니까?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홍보 업무를 하겠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여기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세팅이 끝난 다음에 지방자치 업무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기를 세팅하는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업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행복청이 하는 업무를, 홍보하는 예산이 세종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세종시가 중복 예산을 깎아야 되는 것이지 행정청이 본연의 업무를 홍보하는 데 예산을 깎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게 우리 국토위원회로서는 맞다.

세종시 업무가, 세종시 홍보 업무가 행복청 업무 홍보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행안위에서 세종시 홍보비를 깎는,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행복청의 홍보 업무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제 의견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정준호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잠깐 드리면,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국가상징구역을 워싱턴DC처럼 만들려고 하면 지자체인 세종시에서 그 의견을 내기가 참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행복청에서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만들고 났더니 왜 또 세종시 주민들 얘기만 들었냐, 아니면 국가상징구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홍보물 만들거나 할 때도 다 그 영상이 들어가고 사진이 들어갈 건데 좀 우리들 의견도 좀 듣지 그랬냐, 나 평소부터 우리나라에 워싱턴 DC처럼 이런 거 만들면 이런 거 의견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거 여론 수렴하는 그 과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홍보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견을 들어서 국민 모두가 만족하고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징구역을 만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서 좀 저희가 밀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2006년에 건설교통부 외청으로 설치가 돼서 2016년에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기존에 하던 홍보비 이외에 갑자기 십몇 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증액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홍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장시간 쭉 해 오고 했는데 십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몰라서 내년에 갑자기 뭘 하겠다? 앞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증액 사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홍보를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 기존에 하던 기관 홍보는 계속 하는데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다른 국가기관과 겹치고 있다 두 가지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서류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정준호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국정감사 때 저희가 국가상징구역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감사위원님들이 아마 안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갔었나요? 그때 갔더니 워싱턴 DC형, 무슨 형 고민하고……

○정점식 위원 사람을 그냥 그림자 취급을 해 버리네.

○김희정 위원 우리 다 같이 갔었습니다. 정정하세요, 발언.

○정준호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도 위성단형으로 갈 건지 다른 나라 국가형으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행복청이나 국가정보 부처에서 마음대로 ‘그냥 우리 위성단형으로 가기로 했다’ 그랬는데 다른 의견 나오면 또 그건 국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있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전용기 앞으로 예산 증액되는 분에 대해서 액션플랜이 정확하게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세요. 양해 안 되면 보류시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간 국회라든지 대통령 집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행복도시의 중심부에 210만m<sup>2</sup>에 대해서는 그간 그 지역은 그냥 저밀주거용지라든지 유보용지로서 계획이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정과제로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냥 단순히 집무실만 넣고 세종의사당을 짓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고 그 중간에 있는 공간들은 국민들이 와서 새로운 행정수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규 사업으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어떻습니까?

○김종양 위원 이와 관련된 다른 예산들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괜히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상징도시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꼭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홍보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소위원장 전용기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 방치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 같은데……

○김종양 위원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이게 진짜 왜 이렇게 5억이나 갑자기 홍보비로서 증액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하고 함께 같이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획조정관 박상옥 부연설명 조금만……

○소위원장 전용기 해 주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획조정관 박상옥 예,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게 단순 홍보가 아니라 아까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210만m<sup>2</sup>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참여단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예산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100명, 전문가 20명 이렇게 해서 국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예산과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 그러니까 단순히 세종시나 행복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상징구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예산 그게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국회를 세종에 딱 건립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가지고 할 의미가 없어요.

○**김종양 위원** 일단 여기서 바로 그냥 수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이야기도 다시 한 번 더 들어 보고 그렇게 결정하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페이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를 보고서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시고 세종시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측면에서……

○**손명수 위원** 자료 빨리 내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국가상징구역 사업내역하고 세종시 홍보비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기존도 홍보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돼야 될 특별한 그런, 지금 몇 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전용기**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는 데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액션플랜 짜 가지고 이해 갈 수 있게끔 보고해 주셔야 양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류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의견은 잠시 미루고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4건의 증액 의견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저희 새만금개발청은 심사 안건 4건 모두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새만금개발청 심사는 의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의결이 아니고……

○**김종양 위원** 진짜 증액 많이 하네.

○**소위원장 전용기** 국회에서 논의된 대로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여기는 선심 써야 되는 것 같아 괜히 그냥 빽빽 우길 필요가 없네.

○**정점식 위원** 좀 진행하게, 좀.

○**소위원장 전용기**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 예산 소위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실 소관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은 총 11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에 3 건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교통신설특별회계 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대해서 그 내역사업인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사업에 운전원 인건비 및 대체수단 운영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53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39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60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의 차질 없는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비지원 확대에 필요한 124억 2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 고령운수 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지원사업에 신규로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데 28 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 확충·개선 지원을 위해서 천안 남부권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4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증액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260억 원을 반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대당 1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금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고지원 50% 정도를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전액 인건비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260억 원 문진석 의원님안으로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령운수 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나름 산식

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선 버스·택시 화물 부분에 대해서 3년 검사주기를 토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자격유지검사 대상을 이렇게 산정을 하면서 1인당 5000 원 정도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원 정도 박용갑 의원님안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시·도 자율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가 운신의 폭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자율 편성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안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전체의 럼섬(lump sum)에서 이거를 증가를 시키면 다른 예산이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남도가 이걸 더 증액을 하겠다 하면 저희가 수용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충남도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안태준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거기에 지금 일부 동의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안태준 위원** 거기에 경기도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경기도도 포함을 시켜서……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포함을 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거니까 어디 특정 지역을 빼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소위원장 전용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소위자료 8쪽입니다.

항공정책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에 정부 측이나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는 총 6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AI 기반 신기술 스마트 정비고 신축 사업에 대해서 신기술 정비에는 AI 데이터 기반 진단기술 및 스마트 설비 인프라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3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하단에 드론 종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 첨단 드론 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국제 드론레이싱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첨단기술 장비구입비 43억 원의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하단의 내역사업 중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기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공항개발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김포공항 부지 지하를 활용해서 김포공항 활용도를 제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12쪽입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기본계획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사비 1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에서 밝힌 2029년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원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첫 번째, AI 기반 신기종 스마트정비고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천에 이것을 유치를 하자 이런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의원 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정부예산안으로 5억을, 지금 현재는 350억 요청을 했는데요. 조사비 5억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의로 5억 원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드론 종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부분인데 이것도 남원에,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은 하되 저희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로 1억 원을 받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첨단기술 장비구입비 43억 원 지원 요청인데 이것도 남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2027년 준공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 부분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일부 동의해서 5억 원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예산 배정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개발조사 부분에 김포공항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연구용역을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김포공항 지하에 차량기지 이전 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 국가시범도시지구 지정·고시를 지난 2024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사실상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 1200억 원 중에 1100억 원을 감액을 하자는 지적 사항인데요.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로는 내년도에 판결이 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승소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단을 하고, 저희가 패소한다는 걸 예단을 하고 정부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게 됐을 때는 내년도에 충분히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금 3년째 대규모로 불용되고 있는데 규모도 조 단위여서 지역의 건설경기가 매우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지역 건설 예산들이 쓰이지 못하는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현대에서 입찰을 포기하면서 공사 포기하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이것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는 집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얘기하시면, 그러면 연속 4년째 불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딜레이돼서 그랬는데……

○**이연희 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해 보세요. 가덕도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가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에는 로드맵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적정 공기나 이런 부분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입찰공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 한 3, 4월 정도면 계약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턴키 공사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분까지 하게 된다면, 우선 시공분과 보상비 이런 부분을 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보상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저는 새만금 공항도 법원 판결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참 이것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그냥 정부안대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저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3년째 대규모로 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집행에 대해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기재부장관이 면밀하게 관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집행도 못 하면서 계속 대규모로 예산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새만금 신공항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안대로 예산을 하되 수시배정 예산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기재부장관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그 집행 과정을, 진행 과정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얼마 계획됐는데 얼마 집행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어디……

○윤종오 위원 새만금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 새만금이요? 새만금 같은 경우는 금년 기준으로 보면……

○윤종오 위원 예, 올해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올해 기준으로 보면 45% 집행을 했습니다, 11월 초 기준으로.

○윤종오 위원 그런데 금액이 총 얼마 정도인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632억 원이 본예산이고요. 집행은 420억 원 집행을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윤종오 위원 일단은 브레이크 잡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니, 저희는 브레이크가 잡혀 있지는 않고 물론 소송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종오 위원 판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판결을 물론 기다립니다, 저희는.

○윤종오 위원 판결이 났는데 상관없이 공사는 진행하고 있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제가 좀……

○윤종오 위원 예. 그렇지 않아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항공실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착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1심 판결에서 지속됐던 사항에 대해서 2심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판이 확정되면 그다음부터 착공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1200억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재판이 확정이 되고 나서 착공하기 위한 그 소요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내년도 2심 하면 그것도 확정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 판결 나야 확정이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 배정이 된다손 쳐도 이게 바로 자금 배정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수시배정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정기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 상황이나 이런 걸 봐 가면서, 꼭 수시배정이 아니더라도 예산 배정 부분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미리 감액한다는 것은 벌써 정부 차원에서 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시그널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예산으로 반영을 해 놓고 예산 당국과 협의하면서 사업 절차나 이런 걸 보면서 예산 배정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차관님, 1심에서는 결국 기본계획이 취소가 됐고 지금 항소심 계류 중인데 집행정지는 누가 신청, 원고가 집행정지를……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정점식 위원 집행정지를 신청을 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정점식 위원 그래 가지고 1심에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닙니다.

○정점식 위원 아직 안 하고 11월 12일 날 신문……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신문만 했고요.

○정점식 위원 신문만 하고 그 결정은 안 하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면 내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행정소송이 원체 오래 진행되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판결이 사실은 어제 1심에서는 국가가 패소를 했고 그러면 공사도 중단된 상태에서 국가에서는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산 배정을 하자는 건데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하네요.

○이종욱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만 들어온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직 심리만 하고 결정은 안 된 상태니까 사실 진행은 해도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까 3심까지 착공을 못 한다고 해서, 만약에 가처분 인용 안 되면 계속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2심 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났는데 정부에서 먼저 갔다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저희는 2심 결과는 기다리는……

○이종욱 위원 그러면 착공 소요는 내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년에 420억 집행한 것은 뭐니까? 설계비예요? 설계비가 사백몇십억이나 들어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보상비.

○이종욱 위원 보상비?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예, 보상비입니다.

○이종욱 위원 착공 소요는 내년에 들어 있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예.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항개발조사 관련해서 김포공항 지하부지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에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지하부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역 비용에 대해서 못 받겠다고 말씀 주셔 가지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는 좀 우려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차량기지를 다른 곳에 이전하는 부분이고 위의 부분은 어찌 됐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이미 진행 중인 용역이 하나 있다는 말씀이신……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하나 있으니까 그걸 봐 가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새만금 사업이랑 가덕도 사업 관련해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대의견에 수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 부분도 참 틀린 말씀은 아닌데 솔직히 정부 측 입장에서는 수시배정으로 되면 이 부분의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가덕도도 그렇고 새만금도 그렇고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그럴 수 있어서 안전장치는 있거든요, 정기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작전을 굉장히 잘 쓰셔 가지고 이연희 위원님이 일단은 김종양 위원 오시기 전에 빨리 넘어갑시다.

○**손명수 위원**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이것은 수시배정 우리가 안 걸어도 기재부에서 자동으로 걸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손명수 위원** 그것 안 해도 다 장치가 있어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정부안으로 가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방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전부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보고자료 13쪽, 모빌리티자동차국 소관에 모두 12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이 모두 동의하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모빌리티자동차국은 넘어가고 다음 도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입니다.

18쪽, 도로국 소관에 대해서는 모두 113건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 모두 55건에 대해서 정부 측 또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먼저 일반회계 고속도로·국도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AI 기반 포트홀 자동탐지 및 다기능로봇 모듈탑재 특장 모빌리티 기술개발에 관해서 싱크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성능평가 및 시범운행 등을 위한 사업비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고속도로 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3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63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인 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비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평가 용역 수행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 계속 고속도로 조사 사업입니다.

상단에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고,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확장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비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계속 고속도로 조사 사업에 김해-밀양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비로서 2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3억 5600만 원 또는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하단에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공사 사업을 위해서 공사비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4쪽의 고속도로건설 사업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턴키발주 및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17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 25쪽에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에 신속한 공사와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76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 26쪽 광주-대구 고속도로 담양 나들목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3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27쪽 국도건설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천안 목천-삼룡 국도건설의 조속 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11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다음 쪽 28쪽입니다—경주 외동녹동-문산 국도건설의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을 위한 보상비 및 건설비 9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신안 암태수곡-신석 국도건설을 위해 집중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건설비 132억 3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고흥 영남-포두 국도건설에 들어난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60억 원의 건설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하단에 홍성 서부 남당-광리 국도건설에 보상비 및 공사비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에 타당성조사 후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비 2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 국도건설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 및 보상비 2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서천 화양-기산 국도건설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및 공사비 3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완도 고금청용-상정 국도건설의 조기착공을 위한 건설비 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2쪽, 제천 수산-단양 단성 국도건설에 공사비·보상비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무안 현경-해제 국도건설 건설비 52억 6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3쪽 중단에 아산 송악 유곡-역촌 국도건설에 대해서 조속히 설계 마무리 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 및 공사비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35쪽입니다.

상단 충주 살미-제천 한수 국도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 및 보상비 50억 원 증액, 장흥 유치-영암 금정 국도건설 사업에 대해서 26년 착공을 위한 원활한 보상과 공사추진을 위해서 19억 81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신안 비금-암태 국도건설에 대해서 지연된 일정을 만회하기 위한 건설비 97억 37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 36쪽에 거제-마산 국도건설에 대해서 조속한 건설을 위한 건설비 등 1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신장-복용 국도건설에 대해서 건설비 등 107억 4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남일-금산 국도건설에 대해서 적기 준공을 위한 공사비 10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입장-진천 국도건설에 대한 건설비 24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천안 성환-평택 소사 국도건설에 대해서 적기 준공을 위한 건설비 20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에 대해서 적기 준공을 위한 건설비 583억 7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에 대해서 역시 건설비 404억 92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천안 동면-진천 국도건설의 적기 준공을 위한 건설비 213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태안 고남-창기 국도건설 사업에 대해서 상습적인 정체 해소 및 선

형 개량을 위해 공사비 44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첫 번째, 18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기반 포트홀(R&D)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50억 원 신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이건 R&D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기획연구라든지 과학기술자문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예산에 반영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 동의는 하지만 한 33억 원 정도, 윤종군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창-괴산·속초-고성 고속도로입니다.

2개 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넣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예타가 통과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진·김도읍 위원님께서 50억 원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 여러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타당성 평가 용역 적정 금액으로 봤을 때 이 중에 한 반절 정도, 25억 원 정도 반영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중평-호법) 확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 10월에, 지난달에 신청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에 넣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비 증액 말씀 주셨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정부안으로 조금 적은 금액을 했는데요 24억 원 그대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민원이 좀 있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차량 이동보다는 등산로로 이용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덕구청하고 한국도로공사 간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으로 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그런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영일만대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정부안 유지 입장을 견지했었는데요. 집행 가능성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한 500억 원 정도 추가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부안 유지를 했는데 500억 원 정도 증액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산-당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정부안 유지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집행 가능성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약 200억 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대구 고속도로 나들목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전 절차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나들목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검증하는 절차,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국회에서 증액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실하고도 협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천안 목천-삼룡 국도건설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정부안 유지 의사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119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외동녹동-문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정부안으로 2억 원만 반영을 했는데 총 10억 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8억 원 정도 추가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 암태수곡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약 40억 원 정도 추가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9쪽 고흥 영남 국도건설입니다.

저희가 정부안으로 5억 원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일부 동의로 해서 5억 원 반영토록 해서 총 10억 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서부 남당 국도건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동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10억 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도저히 이것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주 남이 국도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총 10억 원으로 해서 추가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서천 화양 국도건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10억 원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안 유지였는데 10억 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완도 고금청용 국도건설입니다.

이것도 착공 소요인데요. 저희가 5억 원 증액을 반영해서 10억 원으로 그렇게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 수산 국도건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태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무안 현경 국도건설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정부안 유지를 원했는데 이 부분도 30억 원 정도 추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쪽 아산 송악 국도건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집행 점검을 해 봤는데 내년도에 10억 원 착공 소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쪽 충주 살미 국도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립공원 통과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장흥 유치 국도건설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10억 원 정도의 착공,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는 5억 원으로 정부안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10억 원까지도 수용하는 입장으로 했는데 정부안에 20억 원이 지금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 유지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안 비금 국도건설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 가능성 고려해서 50억 원 추가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거제-마산 국도건설입니다.

이것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 부분인데 민자사업으로 지금 자자체에서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도 5호선을 개설하게 되면 거가대교 손실분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의회에서도 이 손실분을 자자체에서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제-마산 국도건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게 거가대교의 손실부담금과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도의회와의 협의라든지 행안부와의 협의라든지 프로세스가 정리된 다음에 정부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신장-복용 국도건설 부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정부안 유지를 원했는데요. 추가적으로 50억 원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남일-금산 국도건설도 저희가 10억 원 추가로 반영토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 입장-진천 국도건설입니다.

이것도 집행 가능성 고려해서 50억 원 정도 추가로 집행 건의드리겠습니다.

천안 성환 국도건설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50억 원 추가로 반영토록 건의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천안 압해 국도건설인데요 이것도 200억 원 정도 추가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화태 국도건설도 200억 원 추가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 동면-진천 국도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 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태안 고남 국도건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20억 원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전용기 예.

○정점식 위원 차관님, 24페이지의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은 처음에는 정부안 유지에서 500억 증액으로 변경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정점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6페이지의 거제-마산 국도건설 보니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의 경우에는 24년도에 예산 부대의견으로 해서 '거가대교 손실 전부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경남이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집행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했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정점식 위원 그때도 100억 원은 배정이 됐던 겁니까, 24년도에 부대의견을 이렇게 단 것 보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타당하신데. 당연히……

○정점식 위원 아니, 부대의견을 단 것 보면 예산 배정이 됐겠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때 50억 원이 반영됐다고……

○정점식 위원 지금 그 이후에 경남도에서는 경남연구원의 손실보전금 비용추계 용역을 통해 가지고 행안부에 손실보전금 부담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그것을 받아서 다음 주에 행안부에서 하는 손실보전금 부담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정점식 위원 그리고 그 직후에 도의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의결할 예정인데 원래는 사실 거의 이번 주 정도에 투자심사위원회 되고 20일 날 상임위, 26일 날 본회의 거쳐서 한다는 게 경남도의 계획이었는데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올 12월 중에는 이 절차가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제-

마산 국도건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 사업인데, 결국은 거가대교 손실 보전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체가 됐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이것을 이전 24년과 같이 부대의견을 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증액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시를 드렸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제가 봐도 과거 선례라든지 그 다음에 SOC 프로세스를 보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넣어 가지고……

○**정점식 위원** 부대의견 달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다는 조건으로……

○**정점식 위원** 이전 24년의 경우와 같이 부대의견을 달고. 100억 증액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이게 소위 사전에 진행돼야 될 비용추계라든지 그 당시에 경남연구원의 비용추계 용역이 시행 중이었고 타당성조사도 안 끝났고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의견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정도로, 일정까지 구체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경남도의회의 사전 동의도, 사실상 동의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이 해당 안건은 보류하고 부대의견이 오면, 부대의견 수용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오면 추후에 부대의견과 함께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욱 위원** 예산은 한다는 거지요?

○**정점식 위원** 예, 예산은 하고 부대의견……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예산은 반영하고……

○**이종욱 위원** 예산 100억 올리고?

○**소위원장 전용기** 예, 예산 반영하고……

○**이종욱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금년도 예산 없습니다. 없으니까……

○**정점식 위원** 없으니까 100억 증액을 하면서……

○**이종욱 위원** 아니, 금년도, 25년.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러니까 2025년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올해 없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없고요.

○**이종욱 위원** 없는데 부대의견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그렇지요?

○**정점식 위원** 아니, 이것은 24년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24년 얘기입니다.

○**이종욱 위원** 24년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종욱 위원** 24년에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2024년 것으로 했나, 그때 50억 원을 반영해 가지고, 50억 원 반영하면서 부대조건에……

○**이종욱 위원** 선례가 있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정리하자면 예산에 대해 100억 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는 의견이신 거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부대의견은 추가로 논의하시는 걸로……

○**안태준 위원** 작년처럼 단다는 거지.

○**정점식 위원** 이것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지요, 24년 부대의견과 같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24년 부대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부대의견을 별자로 제공해 주시는 거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지금 여기 소위자료 36쪽의 39번 박스 하단에 보시면 24년도 예산 부대의견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면, 똑같이 하실 거면 이대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정부 측 수용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20페이지의 중부고속도로(증평-호법) 확장사업, 이게 지금 중부고속도로의 대표적인 병목구간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확장하는 데?

10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셨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가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간에는 1년 이상 걸려 왔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그런데 기재부에서도 요즘 신속 예타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단축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통상 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기재부는 지금 증평-호법 구간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왜 이렇게 자꾸 타당성조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는……

얘기를 하시지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도로국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타 신청을 했고요. 아마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예타 들어갈지 안 들어갈

지 올해 연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기재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속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전 타당성조사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토부에서 보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배정 프로세스들이 사업계획 수립하고 사전타당성조사 하고 예타 받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딜레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예타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국토부의 입장이 의지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래서 저희가 두 번 다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그간 딜레이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사업 절차대로 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 절차를 봤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저희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같은 저기인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남이-서청주 구간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남이-서청주 구간도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위원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것은 예전에 저희 타당성 재조사에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고속도로건설계획을,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다시 담아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그것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계획을 확정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계획 확정하면 그것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의원실로.**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연희 위원 아니, 연말이라면서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니요, 그래서 좀 실수한 것 같아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계획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종욱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병목구간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항상 평상시에 생각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신규 고속도로 사업들은 계속하면서 이것을 절차 이행한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짜 예타 면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목구간 때문에 호남, 영남에서 올라온 차들이 새벽에 다 거기 서 있고 그러는데 신규 고속도로 건설하면 뭐 합니까? 그것 다 안 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좀 말씀하셔서 기재부랑 예타 면제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트랙을 만드시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차관님, 한번 신경 써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35페이지 보면 저희가 여러 개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장흥 유치-영암 금정 국도 관련해서 광주-강진고속도로가 내년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개통이 된다고 쳐도 사실 교통 수요가 장흥에 주요 관광지들이 많다 보니까 종점 구간에서 장흥으로 연결되는 국도 구간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말씀드렸던 거고.

전체 사업비가 400억밖에 안 돼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물론 10억 정도 증액 수용한 걸로 정부안을 주셨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5년짜리 공사로 봤을 때도 연부액이 1년에 그래도 한 60억 정도씩은 들어가야 조기 착공도 가능하고 완공이 될 것 같아서……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정부에서도 많이 증액, 일부 증액도 좀 받아 주시고 하셨는데 이것은 크지도 않고 또 고속도로가 개통됐는데 막상 장흥까지 가려고 하니까 정작 ‘도로 공사가 되다 말았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것은 조금이라도 더 국토부에서 증액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착공 소요 한 5억 원 정도 정부안으로 넣었다가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 해서 한 10억 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는 한 20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착공 소요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가 한 10억이나 어떻게, 그 정도 추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60억 수용해 주시는 건가요, 일부 수용?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보고자료 41쪽, 연번 51번부터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 사남-정동 국대도건설 사업에 대해서 교통정책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해서 건설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기 보상을 위한 건설비 등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천안 성거-목천 국대도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보상비 및 공사비 증액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

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남산-하양 국대도건설 사업에 대해서 공사비 18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봉정-방문 국대도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준공을 위해서 공사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영주 평은-안동 도산간 지선국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비 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도23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3쪽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파트입니다.

하단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마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국도3호선 마원지구 병목지점 개선사업의 설계비 및 보상비 등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도17호선 순천시 해룡면 교차로 개선사업에 입체연결도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사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계속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국도21호선 배방역 입체교차로 개선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도43호선 세교교차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위해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내역사업 국도21호선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위해서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역시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의 벌말~벌터 교차로 일원 교통 혼잡 개선사업의 공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9쪽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분야 국내 AI 응용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단축시키고 일이 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나 KDI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4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210억 원, 50%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의 민자도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경기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단의 내역사업인 이천 대포-장록 국지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인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국지도건설 사업에 2026

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계속 국지도건설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성환- 입장 국지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북 도계-천안 탑원 국지도건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4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 사남-정동 국대도건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착공에 필요한 5억 원 정도 했는데 10억 원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 성거 국대도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대로 2개 공구기 때문에 15억 원 그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산-하양 국대도건설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할 줄 알고 정부안에 미 반영된 사업인데요 이번에 주신 의견대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 증액을 저희가 정부안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정-방문 국대도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20억 원 증액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은-안동 지선국도 건설 그다음에 영광-함평 신광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선 영주 평은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선국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선국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사업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을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23호선도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마북로 보행환경 사업인데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용인시 지자체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입니다.

도로병목지점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마원지구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0억 원을 정부안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17호선 순천시 해룡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50억 원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잔여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쪽, 2개의 사업이 해당되는데요. 세교교차로와 도고-신창 병목지점 2개가 있는데 이 것도 병목지점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별도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안으로 넣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기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인데 의원실과도 협의가 되었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별말~벌터 교차로 사업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시의 지자체 도로 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담을 그릇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인데요.

어제 국토 분야 소위에서 나와 있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이 있고 디지털 도로 AI 신기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적사항에 2개를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아직 보류사업이기는 하나—저희로서는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렸고요, 어제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자도로 운영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기초지자체의 비용 부담 등 필요한 협의가 아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입니다.

이것은 시도 자율 편성입니다. 이천 대포와 이천 백사 부분 2개가 그렇고요. 그다음 폐이지에 있는 성환-입장, 충북 도계 이 부분도 다 지역자율계정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역자율계정은 하나의 그릇 안에 담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반영한다면 다른 사업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는 이걸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의가 있지 않는 한 정부안 유지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태 위원** 49쪽 민자도로 운영지원, 정부안 유지 의견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필요성은 있는 사업이고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기재부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재정당국과 지자체 등과의 방안 논의를 위해서 저희 위원회 단계에서는 전향적으로 일단 반영을 해서 예결위로 올리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그간 지자체 의견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상황, 기재부 의견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사실상 정부안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이건태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또 저희들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신 걸로 잘 알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국가 정책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정부안 유지보다 증액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받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의 집행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우선은 사실 이걸 예전부터 경기도가 매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김포나 고양 시민들 같은 경우, 그 인근 시민들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사실 지금 김포시장이나 고양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당도 아닙니다. 우리 당도 아니고……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해 왔고 실제로 예전부터 노력이 있었고 이번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50% 분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까 차관님께서는 지자체 노력이 아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포시장도 이것을 일부 내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아마 MRG 걸려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누차 노력을 했었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던 부분이거든요. 좀 전향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안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충분히……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시면……

○**소위원장 전용기**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가 투입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 주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수십억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우선은 내년 예산으로 정부안에 한 100억 원 정도 반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반영하고 집행률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안태준 위원** 기왕에 하실 것 요구한 대로 200억 증액하고……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에서도 절반 정도 받는 걸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안태준 위원** 아니, 200억 증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자체 분담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을 봐서 한다 이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달면 어떤가 싶은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전용기** 200억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200억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 200억 수용하고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200억 원을 수용하라……

위원님,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좀……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 100억 원 정도 어떠실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 보고……

**○이건태 위원** 어차피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200억 하고 정부의 입장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렇게 예결위에 보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꼭 위원님들 반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사실상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한 150억~200억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구에서도 그 이외의, 한 몇십억 정도 수준인데 그러다 국고에서 200억을 해 버리면 사실상 비춰지는 의미가 ‘국고가 더 많이 가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체를 아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초년도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0억 원 정도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제 말씀이 혹시 이해가 어려우……

**○안태준 위원** 그런데 초년도가 아니라 이게 통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초년이나 내년이나 그다음이나……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물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건태 위원** 경기도가 얼마를 분담한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한 150억~200억 정도 부담을 할 것으로 얘기를……

**○안태준 위원** 50%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50%를 하겠다고.

**○소위원장 전용기**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소위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에서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저희 경남 지역의 경우에도 거가대교가 대표적이고 심지어 오늘 창원-거제 도로는 거가대교 손실보증금을 경남도의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도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는데…… 물론 그 특수성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거가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이 창원-거제를 통행하게 되면 거가대교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다시 또 지자체들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고.

일산대교의 어려움 역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는 과연 경남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마는 김포라든지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주변 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民間이 부담하던 것을 경기도가 일부 부담하겠다 그리고 기초단체가 일부 부담하겠다라고 하고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예상되는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것까지는 반대하기 어렵지만 조금 전에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상회하는 국가 부담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유료도로, 인천대교라든지 영종대교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거기에 많은 지원이 있어 가지고 통행료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할 것에 대비해서, 소위 지자체가 자기들 부담으로 일정 부분 부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고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마는 지자체 부담분을 상회하는 국가 부담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100억 정도 부담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자체의 요건 맞추는 것,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민자도로를 무료화하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예산으로 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사전에 정책이나 그게 다 정해지면 예산은 그 뒤에 따라가는 거지 예산으로 이렇게 무료화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민자사업에 파급효과도 있고……

지금 민자제도가 굉장히 위축됐다고 그럴까, 당초 취지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전에는 통행료가 몇 배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1.1배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지요. 그렇지요?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원래 민자도로 할 때는 그냥 놔둬서 국가에서 할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되는 거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빨리 10년, 20년을 당겨서 건설을 하면 편익을 빨리 볼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내고라도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은 국가사업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고 생각이 바뀐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은 일단은 글쎄요, 저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100억 하시겠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제도를 먼저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이것 같이 전국적으로 사례도 많고 우리가 민자 제도로 세팅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큰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저희 아홉 분의 위원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차관님이 100억의 부대의견 입장을 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올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기초단체가 여기에, 도가 아니고 기초단체, 김포…… 파주에 대해서 파주 쪽에서는 부담 못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파주, 고양이 이렇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지자체 간 협의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경기도와 3개 시가 완벽하게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안에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넣으면 금방 또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에서 얘기한 정도로 받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예, 저는 넘어서는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욱 위원 다른 거……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이종욱 위원 디지털 AI 도로 있지요? 그것은 앞에 다 보류시켜 놨잖아요. 그거랑 나중에 같이 하도록 보류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전용기 예, 보류하십시오.

○이종욱 위원 그렇게 하고요.

도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SOC 예산, 그렇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증액됐다고 했는데 도로는 전년 대비 8000억 깎였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특히 43페이지 여기 보시면 도로안전, 환경 이런 게 중요한데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은 4500억짜리가 3500억으로 1000억 깎였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활성화라든지 지역 건설경기랑 도로가 굉장히 직결돼 있고, 특히 이런 도로안전, 환경 이런 것은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쪽 부동산 쪽 예산하고 보면 비교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결위도 가고 하면 여러 가지 조금 유토리가 있을 거니까 나오는 재원을 가급적 도로 쪽으로 많이 돌려 가지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철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 놓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46쪽에 국도21호선 배방역 입체교차로 개선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억 원 추가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내년도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이기 때문에 10억 원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일부 동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록 때문에 그렇게 말씀…….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런가요?

○**소위원장 전용기** 예.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10억 원 반영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10억 원으로……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이어서 52쪽입니다.

철도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50건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중에 정부 측이나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총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에 노후출자역사개량 사업에 대해서 목포역 노후역사 현대화를 위한 예산 71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중 그 내역사업인 구축물개량 사업에 포항역 선상연결 통로 건립을 위한 예산 43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6쪽,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에 분당선 연장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7쪽, 철도산업발전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경부선 부전-물금 구간의 열차 운영 효율화 및 역사 복합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PSO 보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 413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음,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행복, 맘편한코레일 사업이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운임할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재정으로 지원하기 위한 156억 2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고속철도건설 사업입니다.

고속철도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두 동의하였기 때문에 59쪽의 일반철도건설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에 잔여사업비 전액 반영을 위해서 5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0쪽, 남부내륙철도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2026년도 보상 및 공사 착공 등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한 공사비 등 4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광역철도건설 사업 중에 신안산선 복선전철건설 사업의 2026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예산 312억 1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3쪽, 계속해서 광역철도 중 양주 덕정역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을 위해서 동력비, 인건비 등 총 74억 50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원선 급행열차 덕계역 추가 정차 지원을 위해서 연간 소요비용 1억 23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익산역 서부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을 위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서울시 1~4호선 건축분야 시설물 개량을 위한 213억 4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울 지하철 5호선~8호선까지의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국비 356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에 고속선 무선 통신망 구축을 위한 예산 4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철도국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5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부분입니다.

노후출자역사개량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71억 원 추가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 사업기간을 좀 당겨서 집행 가능한 것까지 고려를 해 봤을 때 71억 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억 원 정도 증액으로 하면 어떨까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여기는 김정재 위원님, 포항역 선상연결통로 건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해 봤는데 이게 보니까 연결통로 건설비용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역사까지 연결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하고 철도공단하고 이미 합의를 해서 포항시에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온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 유지가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6쪽, 분당선 연장(왕십리-청량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약 800억 원 정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예산을 넣고 또 후속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요. 기재부에서 정부안으로 예타 대상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사실상 이게 예타 대상이 안되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 예산에서 5억 원을 배정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정부안으로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정부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부전-물금 구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프로세스가 좀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먼저 기본구상 용역 같은 그것을 좀 해 놓고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바로 정부안으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특정 자체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PSO 보상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PSO 부분은 그간 아주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부분에 PSO 해 줘야 된다는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정부안으로 이것을 국토부가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부대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쪽으로 부대의견에서 받으면 어떨까 그런 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행복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코레일 자체적으로 어찌 보면 영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으로 현실적으로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총사업비 잔액이 39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성주역 건립비용을 포함하여 450억 원 증액 부분인데요. 이것도 많은 자체에서 별도의 역사를 국고 그러니까 재정 부담으로 역사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성주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사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국고로 넣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312억 원 추가 반영을 요청하셨는데 총사업비도 한 300억 원 정도로 이것보다 좀 못 미치는데 여기가 철도사고가 났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실적으로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양주 덕정역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경원선을, 양주역에서 종착하던 것을 덕정역까지 연장을 하면서 나머지 비용을 정부에서 돈을 달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정부안으로 넣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운영사와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경원선 급행열차 덕계역 추가 부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역 서부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부분입니다.

여기는 익산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의 시설 개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같이 감안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별도의 추가 예산 증액보다는 정부 예산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건축분야 제연설비, 소방펌프 등인데요. 이것은 꼭 서울시만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전체 안전시설에 대해서 조사설계비 명목으로 한 12억 원 정도를 받고 조사설계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서울시에 이거 직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5호선~8호선 부분도 조사설계비 20억 원 받는 것으로 일부 증액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LTE-R 한계로 인한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부안 유지를 저희가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까지 철도통합무선망을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왔습니다, LTE-R로. 소방이라든지 방재라든지 이런 거와 같은 LTE-R 선로를 쓰면서 정부 차원에서 주파수나 이런 것으로 할당을 받아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별도로 시설 업그레이드를 할 거니까 이것을 정부 예산을 달라 이런 표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기술 업그레이드라든지 다른 사업 업그레이드, 아까 LTE-R, 국가적인 차원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 단계에서 특정 지자체한테만 이거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끝났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차관님, 55페이지 포항역 선상연결통로 건립을 위한 예산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가 됐었던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정점식 위원 그게 그 당시는 왜 증액이 안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위원님, 철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이게 그 선상 연결 통로가 필요하게 된 게 포항역의 서편에 주차장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국가 소유고요, 하나가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포항시 소유의. 포항시가 거기를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그 주차장을 대체하는 대체 주차장을 포항역 오른편에, 철도 유휴부지에 짓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편에 있는 주차장이 동쪽으로 옮겨가는 그 원인 행위를, 멀쩡한 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기는 원인 행위를 지금 포항시가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유휴부지 활용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 동쪽에 만들다 보니까 승강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선상 연결 통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까지도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철도건설법상 다 원인자가 100% 비용을 다 대게 돼 있고 작년에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를 할 때에도 포항시가 이행계획을 철도공단에 제출하면서 25년도에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25년에 포항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이미 공문으로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의 부전-물금 연구용역비 3억 5000 이게 반영 안 되는 이유가……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보통 지자체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역사 주변에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정부안에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런 선행 절차 없이 바로 그냥 정부안에 넣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현재는……

○정점식 위원 그리고 60페이지의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해서 당초 예산안이 2609억 원 이었는데 40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정점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상비하고 이런 것……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런 거지요. 사업비지요, 사업비.

○정점식 위원 당연히 지출돼야 되는 일반사업비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정점식 위원 어쨌든 400억 증액에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또 의견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56페이지, 분당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5억 편성을 지금 안 하더라도 법 통과가 되면은 다른 항목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시다는 취지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큰 틀에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그 정도 내용을 부대의견에 한번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62페이지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이 부분이 애초 국비를 2661억 반영을 요청했는데 2349억만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나머지 그 차액이 312억이 발생한 건데 이것 추진하려면 국비 지원을 애초에 견의한 대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것은 사고 발생 구간인데 사고 복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내년에는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로 불거든요. 잔여사업비 한 300억 원 정도인데, 그래서 내후년에 반영하면 어떨까……

○**이연희 위원** 내후년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차관님,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 그냥 예산에 좀 꺼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얘기인데요. 지금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국가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의 숙원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오락가락하던데 연내에 고시가 좀 되는지, 내년까지 또 넘어가는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는 연내 고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다만 일부 지자체별로 의견이 있는 부분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램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도와 시 간에 의견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연내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관심 갖고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철도국도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전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소위자료 65페이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위자료 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모두 26건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에 정부 측이나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67쪽 하단의 광역버스 공공성 지원 강화사업의 내역사업인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은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충분한 광역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차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증차를 위해서 5개 노선 지원비 2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중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다른 자자체에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비교하여 더 낮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45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사업 중에 광역BRT 구축사업에서 대전시에 세간 출결차량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6년도 공사비 40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 구축지원사업으로서 영천 광역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2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66~67쪽인데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입니다.

저희 정부안은 각 항목별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중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314.9억 원 증액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손명수 위원님부터 전용기 위원님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314.9억 원 부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신규 증차 노선 같은 경우는 67쪽에 나와 있는 양주 옥정신도시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신규 증차 노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수요조사라든지.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고 개별적인 양주 신도시 같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확정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7쪽의 가장 하단부에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5000 다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버스 지원인데요 여기도 만차율 등 혼잡도에 따라서 향후에 배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부분입니다. 이거는 흔히 K-패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서울시와 여타 지방,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조율을 지금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40%와 50%로 나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데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요즘 서울 이외의 다른,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그런 페이버(favor)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건의말씀 드립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광역BRT 구축 부분에서 대전시의 3량 굴절버스 부분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저희가 개별적인 차량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번에 2차 BRT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데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앞으로 대전시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의 환승센터 구축지원입니다.

이거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시 영천 광역환승센터 건립 21억 원 증액 부분인데 저희가 별도의 광역환승센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영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로 해서 3억 원을 반영을 하면 어떨까 건의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정부 원안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다음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이어서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건의 질의가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종수** 이어서 부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 부대의견은 모두 42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에 정부 측에서 11건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와 부동의와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부대의견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수사업법 개정 및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인데 저희가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위

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로는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분에 이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침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시 정부, 지자체, 도로공사 간 합리적인 재원 분배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상부도로 개량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부, 지자체 및 도로공사 간 합리적인 재원 분배 방안을 타당성조사 시 적극 검토한다'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핵심이 되는 부분은 상부 개발에 대해서 현재는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국고지원을 하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바로 넣겠다 안 넣겠다보다는 타당성조사 시에 검토하면 어떨까 이런 건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바꾸면 어떨까 건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사업부터 계속 노후철도차량지원.....

생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한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 했는데 국토부 의견으로서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점검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하는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구는 별도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제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동대구-창원-가덕도 고속화철도와 CTX-진해선 건설 사업을 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7번입니다.

생략해서 PSO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PSO에 대한 손실보전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철도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PSO 보전 예산을 확대하고 보전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대의견에서 '2026년도 예산편성 시 보전액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부대의견에서 처리하면 어떨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8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PSO 국고지원을 도시

철도 운영자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인데 이 부분을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모색한다'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사업 절차 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광역철도가 경유하는 부천시의 옥길·범박역을 반드시 설치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위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옥길·범박역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특정 역사를 이렇게 반드시 넣는다는 게 조금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31번입니다.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부천시 구간을 포함한 경인선 전 구간이 지하화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지하화 사업 추진 시 조세 감면, 교차 보전, 재정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달빛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예타 면제 확정을 받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예타 면제 확정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여기도 아까 별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주역 건립비용의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의견에서 삭제하는 쪽으로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38번입니다.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오류동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업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요 조사서에 서대전광장 개발 등 사업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 보완해서 제출할 경우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 이유는 대전시에서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건의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번입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천변도로 확장 사업의 재정 사업 구간을 반영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부동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변도로 확장계획 수립 후 개선 계획 대상으로 신청 시 혼잡도로 지정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41번입니다.

'녹산-진해 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예

비타당성조사를 즉시 실시한다'인데 이것도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아까 부대의견으로 나왔던 것 중에 3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는 거가대로 민자 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되는 거가대로 손실 전부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가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국도5호선 거제-마산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추진 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료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을 책임 있게 분담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토교통부는 분당선 연장(왕십리-청량리)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즉시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한다'로 수정의견을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부대의견 34번, 성주역 건립비용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경우에는 기본역이 다 설정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정점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성주 같은 경우는 역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그거겠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역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 역사가 없다' 하면서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많은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첫 번째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지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요. 타당성이 있는지를 철도시설공단에서 검증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경우에 BC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면 BC가 있다면 지자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너희들이 부담을 하면 하겠다'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국비 지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철도국장 하실 말씀 있어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성주역은 원래 성주 신호장입니다, 위원님. 여기가 단선 철도이기 때문에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신호장이거든요. 원래는 성주에서는 신호장, 상호 교차 운행할 수 있도록만 돼 있는데 원래 없던 역을 성주시가 추후에 요구를 했고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검증이 되어서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하는 걸로 상호 성주시하고 철도공단하고 서로 약속을 해서 기본계획에도 성주 신호장을 성주역으로 하면서 그 비용은 성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기본계획이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정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건태 위원 차관님, 31번 철도지하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차관님 말씀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3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합리적 재원 분배 방안 마련한다’ 이 부분인데요. 아까 차관님 말씀이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 되면 상부도로 부분을 지자체에서 개발을 할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개발이 아니고 상부도로 개량 및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천시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게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관리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데 이제는 부천시 구간은 부천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재원 분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타당성 조사 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조금 불만스러울 수도 있는데 보통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상부 공간이 조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보통은 일반도로로 전환해 가지고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개발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를 일방적으로 분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타당성을,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자는 측면에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태 위원 차관님, 경인고속도로 하부가 지하화되면 상부도로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로로 쓰거든요, 도로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일반 도로로 하거나 녹지를 조성하거나 그렇지요.

○이건태 위원 거기에 녹지를, 거기에 무슨 개발을 하겠어요? 결국 도로로 쓰거나 도로가 좀 좁아지고 옆에 화단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하겠지요. 수익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일반 도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도로가 크기 때문에 관리비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정부, 지자체, 도로공사 간 합리적 재원 분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것을 타당성 조사 시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받아들여도 되실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러면 이것 가지고 위원님하고 제가 계속 논쟁보다도 위원님 말씀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옥길역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차관님 말씀도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민자 사업이 완전히 확정도 안 됐는데 옥길역 설치를 반드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다소 무리다, 이해가 되는데요. 2025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옥길·범박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똑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같은 표현이라면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대의견은 정부안과 지금 수정한 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보류사업 1건에 대해서……

○**정점식 위원** 아니, 차관님께 잠깐 질의드릴 게 있어서 하나만……

○**소위원장 전용기** 예.

○**정점식 위원** 차관님,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포항역 선상 연결 통로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해당 위원님하고도 통화도 했고요.

○**정점식 위원** 방금 조금 전에도 통화하셨다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래서 통화했고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좀 그랬는데 방안을, 제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속도로 부분도 지금 전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전향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몇 번입니까? 그게 어디……

○**정점식 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여지가 없는지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보류사업 1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하신 설명자료, 그러니까 5억 원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먼저 국가상징구역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그리고 22년도에 국회법,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오는 210만 평에 대한, 좀 편히 말씀드리자면 국회 뉴타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간의 행복도시 사업과 별도의 사업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2번입니다.

행정수도 세종 국민소통 및 홍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과업의 내용은 말 그대로 대국민 설문조사 그리고 국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고 거기에 부대해서 광고·홍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 과업의 주요내용은 국민참여단, 백이십 분으로 참여단을 구성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직접 기획을 하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3번입니다.

세종시 홍보 예산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행복청은 국가기관으로서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도 일상적인 홍보 예산이 있지만 용산공원이라든지 가덕도신공항 같은 주요 사업이 생기면 별도의 홍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매년 별도의 14억 원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세종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고 또 행정수도로의 위상 강화 같은 어찌 보면 추상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이 단일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데에 대한 홍보는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부분, 참고 사항들은 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보니까, 자료 주시니까 조금 더 비교가 되는데 용산공원 국민참여단도 6억 정도로 했고 그것보다 더 지금 감축된 규모로 홍보나 여론 수렴을 진행하시겠다는 거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크게 규모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용산보다도 적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 한번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적극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용산공원은 문제 있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격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예를 들어요?

○**소위원장 전용기**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이건태 위원** 없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김희정 위원님 어떠십니까?

의견 없으세요?

○**김희정 위원** 안 된다고.

○**소위원장 전용기** 충분히 세종시와의 홍보 예산과의 차별성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안이 추진되는 부분들이 소통이 됩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전한 게 10년 지난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와서 봤더니 반드시 올해 새롭게 들어가야 할 5억이 추가돼야 되는 거에 대한 게 없어요. 보면 그냥 온라인 인플루언서 해 가지고 솗품 만들고 인스타그램 만들고 지하철역 광고하고 서울버스 광고하고 특별히 올해 5억이 더 추가돼야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있는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답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 설계 공모가 내년 1월이나 아니면 빠르면 올해 12월에 설계 공모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한 5월쯤에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설계 공모 당선안이 나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사업들이……

○**김희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회 예산에서 얘기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러니까 국회만 달랑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국회를 포함하는 이 일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국가적인 상징성을 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소위원장 전용기** 지금까지 방치돼 있던 내용들을 이제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예산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전용기** 예, 말씀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5분만 정회……

○**소위원장 전용기** 5분만 정회하시자고요?

○**정점식 위원** 예, 5분만 잠깐만 정회하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10분 정회하시고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전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차장님, 조금 전에 이제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사실은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예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 5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행 복청에서도 수용하시는 거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안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보류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총 5개입니다.

국토교통 분야는 어제 심사한 바와 같이 4건인데 1페이지의 1번과 2페이지에 있는 2번은 이미 어제 충분히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도로국 소관 3번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은 2번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형식적으로는 도로국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다가구매입임대 용자·출자 사업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기본 경비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관리 불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도 이렇게 적사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무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 이 2개의 부분은 사실상 형식상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10개 부처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지금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마지막 수요 조사까지도 마무리해서 내년에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신속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용화 지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R&D로 된 것들을 현실에 어떤 식으로 상용화가 될 것인지 부분이기 때문에 실용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가구매입임대 용자와 출자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문제 제기해 주신 이종숙 위원님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 내용 구체적인 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 전체회의 이전에 문안을 확정을 해서 부대의견을 이렇게 넣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지금 차관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과 관련해서는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절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타 대상인데 예타 면제를 했고 그리고 소위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국가재정법 38조 5항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KDI에 접수된 게 8월 22일이고 그리고 9월 24일에 조사 착수가 됐고 각 부처에서 10월 들어서야 급하게 사전 수요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법에 기본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 계획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정점식 위원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래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면 첫 번째, 타당성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타 대상이면서 면제가 되면 이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 봤는데 이거는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대상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 절차 부분도 아까 보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수요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공모를 위한 여러 가지 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련을 했고요. 연내에 좀 더 구체적인 평가 기준, 지원 단가 그다음에 사업비 관리 방안 이런 거는 연내에 다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다가구매입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종욱 위원하고 논의를 해서 소위 사업은 그대로 예산은 승인은 하되 25년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반드시 내년 등에 제대로 예산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담보하는 부대의견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무한정 우리가 소위를 연기할 수도 없는 상태니까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는 게 차관이 제안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이종욱 의원실이 부대의견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과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이 부분은 반대의견을, 감액 의견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결정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용자 출자와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소위원회가 해당 의원실과 국토부와 협의해서 문구를 작성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건태 위원** 제 서면질의 내용인데 구두로 차관님 뷔 김에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시흥IC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과 퇴근 시에 워낙 여기가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데 이곳 중심으로 옥길, 범박, 시흥의 은계 여기가 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6년도 이 사업 타당성조사 및 설계 비용 반영이 필요한데 8억 정도 반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는 전체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다만 연결로 확장이 시도 사업인지 이런 것 정체성이 아직 안 돼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태 위원** 지금 보고를 받아서 그러실 텐데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희정 위원님, 기획조정실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소명이 덜 됐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김희정 위원**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소명이 안 된 부분 저한테 주말 동안 추가자료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용 차량 관련해서는 어쨌든 권익위원회에서 공용차량 운영 과정에 있어서 리스를 자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덜 됐어요. 심지어는 아까 그게 더 경제적이다라고 와서 구두로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실제 제가 서류를 보니까 임대가 더 싸게 나오는 서류였는데 구두로는 리스가 더 싸게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와 구두보고의 내용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21대 있는 본부 차량 중에 장차관 등록된 3대 차량 이외에도 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말이 그냥 차량 운영일지를 잘 쓰겠다라는 말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에서도 별도로 장차관 전용차량과 전담 기사를 운영해서 쓰겠다라는 얘기인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없으셨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차량 운영일지 잘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등록하지 않은 3대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어차피 운영지원과에서 일반 직원들이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느 한쪽은 어쨌든 놀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홍길동이 아닌 이상 양쪽에 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6대를 전체 다 전용차량 없이 같이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 등록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3대만 하겠다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보고도 없으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소명했다? 뭘 소명하셨는데요.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어차피 정부 예산이 12월 2일 날 통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월부터 공고해서 3월부터 당장 상용화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쯤이면 그러

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잘 아시겠지만 정부 예산 6월까지 정말 빡세게, 하고 싶은 예산이 있어도 실링에서 잘리고 기재부에 제대로 된 계획안을 가지고 가도 예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맹탕,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지어 가지고 온 예산을, 올해 그냥 올라타면 내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드니까 이제 상세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 관련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준비를 한 것이지요, 이것?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맞습니다.

○**김희정 위원** 차관님, 이것 읽어보시고 저한테 제출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사업 하면 하는 그런 내용 있지요, 수행기관이 어떻게 위탁기관 어떻게 위원회 만들고. 딱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카피 앤드 페이스트(copy and paste) 해서 왔습니다. AI와 관련된 특화된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예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읽어보지도 않은 것을 제출해요, 국회에!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전용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운행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세종과 서울 양쪽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어느 때는 서울에 있다가 어느 때는 또 세종으로 바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이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전용차량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일반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현실적으로.....

우선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것은 검토를 제대로 못 했다는 점, 다만 이것은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는데 1차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참을 해 왔고 그동안 이 업무에 개입하지 못했다는 점, 그러다 어제 국토소위에 제가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고 읽어보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전용차량이 아니라서 일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울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지금 그러니까 운행일지가 제대로 안 적혀 있던 부분이 전용차량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

○정점식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김희정 위원 전용차량이 아닌데 운영지원과 차량으로 등록을 해 놓고 장차관 차량으로 배정된 3대 이외 별도 차량, 국토교통부 전체에 지금 21대 있던가요? 그중에서 별도 3대를 사실상 장차관 전용차량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전체 직원이 쓰는 것으로 하고 장차관 전용차량에 맞는 규정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양쪽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같이 쓰지도 못하고 어쨌든 한쪽이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행복청은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그런 것 해결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말이야. 다른 기관입니다만 어쨌든 본인들 산하기관이니까.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대를 다 등록할 건지 원래대로 일반 직원들한테 돌려줄 건지 아니면 함께 쓸 건지.

○소위원장 전용기 그 계획은 없으세요?

○김희정 위원 대답 안 했고요. 즉석에서 지금 대답할 부분 아닙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종일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공용차량 운영 과정의 예산 낭비 방지 관련해서 정부의 일괄 한번 지침 내렸던 부분도 위반한 바가 있는데, 역시 저한테 온 자료와 다른 구두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답이 없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용차량으로 등록하는 순간 직원들이 못 쓰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융통하고 있었던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희정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지금 저는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이 아니고 과거부터 김희정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이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김희정 위원 장관님하고 상의해서 답 들고 오세요.

○소위원장 전용기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6대 중에 3대는 전용차량이고요. 3대는 일반차량이면서 다만 전용기사가 그것을 운전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의 불찰이라고 했던 것은 전용기사라 하더라도 일반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 일지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불찰이고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전용기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첫 번째로 운영일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은 사실상 장차관 전용으로 썼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운영일지를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도 같이 쓰면서 전용차

량이 아닌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제가 아까 표현은 한다고 했지만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게 시점이 몇 년도, 그러니까 5년 치나 8년 치나 이것에 따라서 또 차량 리스 가격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약간 근소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이고 8년이고 이것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옳았다고 말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좀 더 분석을 해서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하고 디지털 도로 AI 3번과 다가구매입임대(용자) 출자 4·5번 관련해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정 위원님, 맞습니까?

○**김희정 위원** 예, 그것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한 관리지침,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 사업의 관리지침으로 적합하지 않은 전혀 특화되지 않은 그냥 늘 해오던 루틴한 국토교통부 지침 카피 앤 페이스트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래도 양해해 주신 거니까요 국토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정 위원** 이것 보류해서……

○**소위원장 전용기** 보류하자고요?

○**김희정 위원**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조실 이 두 가지……

○**소위원장 전용기** 다른 예산입니다. 기조실 예산은 AI 응용제품이고요.

○**김희정 위원** 아니요.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기조실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도로국 예산입니다, 도로국.

○**김희정 위원** 도로국입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예.

○**김희정 위원**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 전 것은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사업입니다.

확인하시고 하시지요.

○**정점식 위원** 기조실은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김희정 위원** 저는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하고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하고 2개 묶어서 질문한 거였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됩니다. 2개 같이 묶여 있습니다.

도로국 소관의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과 기조실 소관의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이 2개가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저는 AI 예산을 우리가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희정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전용기 한 번 늦어버리면 이거 한 세대가 문제 생긴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인식입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자고……

○소위원장 전용기 그런데 AI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될 될 것이라고 확정을 지어서 가지고 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요, 확정이 아니고……

그러면 내년 1월에 당장 공고 나가는 데 그런 준비는 돼 있어야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나한테 서류 제출하면서 문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숙지도 안 하고 그냥 종이만 던져 뒀다는 게 방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460억 하나 들고 오고 그다음에 420억 하나 들고 오고 1000억대 사업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냥 1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100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관리지침 전혀…… AI 글자 딱 하나 나옵니다, 제목에. 그리고 뒤에 어떤 내용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카피 앤드 페이스트(copy and paste) 해 왔거든요, 일반 도로국 사업이랑 일반 국토교통부 사업.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읽어 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읽어 보고 내신 것 맞냐고.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저한테 다시 좀 주세요. 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보류해서 주말 동안 제가 국토교통부 통해서 보고를 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을 보류하고 다른 것은 합의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셔야 됩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 2건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계속 심의를 하고 도로국 소관 AI 부분은 오늘 처리를 하고……

○김희정 위원 이게 같이 물려 있는 것……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잘 알겠고요. 그래서 논의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2번은 계속 보류를 해서 논의를 하고 나머지 사안은……

○김희정 위원 어차피 저희 화요일 전에 다 같다 봐야 되는 것이고 2번, 3번 사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침 내용도 거의 똑같이 왔고요. 그래서 같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전용기 국토부에서는 사업 자료를 다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를 한번 더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까 질문했잖아요.

○소위원장 전용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담당 과장님 계세요? 내년 이런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지금 현재 1월 공모를 위해서 관리자 관리지침을 전 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분야를……

○**정점식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동 사업은……

○**정점식 위원** 아니, 마이크를 가까이 하라니까.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예.

동 사업 10개 부처가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지원 분야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셀을 나눠 놓고서 관리지침이라든지 시행 계획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비 계상 그리고 평가 기관, 평가 기준 그리고 향후의 협약, 이후의 평가 절차 그리고 이후의 잘못됐을 때 제재 처분이라는 관련 규정들을 일관적으로 비슷하게 포맷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처에서는 AI응용신속화제품과 AI 디지털도로라는 두 개의 것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사업에 대해서 포맷은 맞추되 사업의 다른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사업의 분야라든지 평가 기준을 약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라든지 사업비 항목들에 대해서는 원래 12월까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초안을 마련해서 전문가 평가위원이라든지 이런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지금은 초안이라는 명목하에 위원님께 제출하기 위해서 포맷에 맞춰서 제출을 지금 한 바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께 제공을 못 하는 이유는 한 200여 개 기업들이 이것을 보고 공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누출이 되게 되면 어떤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김희정 위원님께만 먼저 일정한 포맷으로 드린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 이게 범부처 사업이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예.

○**소위원장 전용기** 국토부에서 1월 달에 공고를 내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예, 그래서 지금 기재부 주관으로 관리지침이라든지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어떤 포맷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처는 지금 관리지침이라든지 관리지침이 세워진 이후에 시행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지침과 시행 계획을 동시에 만들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많이 미흡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바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내용에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미흡하시다는 말씀에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관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많은 조언을 주실 거고요. 충실히 12월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담당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AI사업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2번, 3번 사업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나하면 아까 부처 담당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부처 간에도 서로 예산집행의 중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기조실의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도로국의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에도 상당한 중복성이 보여서 그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로……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지금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삭감 의견 그대로 내시는 건가요?

○김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두 개 사업이 서로 다른 사업이며 그다음에 계획이 제대로 돼 있고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AI 사업이니까 해 주세요, 이런 논의는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아까 가지고 온 것도 그냥 국토부가 본인들 사업을 위한 고심이 보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관리지침, 그냥 그동안 정부가 해 오던 것 그냥 그것 통으로 가지고 와서 끼워서 왔습니다. 이번 AI 산업에 특화된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엔 여러 위원님들이 카피해서 나가도 기업들한테 가도 별 무방한 그런 자료들로 보입니다. 필요하면 가져 가십시오.

○이연희 위원 AI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게 아마 내년도에 사업 진행 중에도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속도에 처지지 않게 일단 예산을 마련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특히 AI 부분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준비해서 하려면 이것 내후년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기술이 다 신기술이 나오면 또 바꿔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AI의 특성을 반영해서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좀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위원님, 지금 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돼서 왔어요. 타입 1하고 타입 2, 타입 2는 계속 가는 사업으로 왔고요. 타입 1은 내년 1월, 2월에 공모하고 3월에 바로 하겠다는 것으로 왔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그게 사업 두 가지가 갈리는데 칸이 네 칸이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한 구분조차 정확하게 못 하고 오고 상당히 중복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이지 AI 사업을 늦추거나 깎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합리적인 지적이십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묶여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명확히 설명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오늘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합의 처리하시고……

○소위원장 전용기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

○소위원장 전용기 저도 의결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해했던 것과 지금 위원님들 간의 입장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결하고 이후에 추가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듭 짓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점식 위원 잠깐 정회 시간에 위원들끼리 대화를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도로국 산하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김도읍 위원 그것을 다 동의를 한 것으로 하고 일단 사실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김희정 위원께서는 도로

국 산하 이 두 개를 기조실 것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계속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사업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다는 건데 결국은 조금 전에 소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기조실 산하의 사업과 도로국 산하의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 또 우리 당 내에도 계속 많은 지적이 있는 게 이 사업이 10개 부처에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부가 1687억 원, 국토부가 14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 10개 부처가 과연 겹치는 사업이 없는지도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각 부처 간 소위 사업 분야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상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지금 다 부처들 간에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 부처 내에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은 일단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도로 부분에 AI를 이용한 로봇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미 다양한 제품군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요. 도로 부분이냐 비도로 부분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구체적으로는 절차적으로 서로 협의회를 거치고 저희 부 내에서는 같이 작업을 하면서 같이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 때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부처 간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협의회할 때 나중에 공고할 때도 같이 공고를 내기로 해서 각각 공고를 해 버리면 부처 간에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한 부처가, 중기부라든지 통해서 하고 각 부처가 같이 동일하게 공고를 하면서 그전에 사전에 미팅을 해 가지고 서로 중복 여부 그다음 사후에 제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았을 때 중복 여부를 서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부처 간에 논의가 이미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조실은 국토교통이라고 올라왔고요. 그렇지요, 제목에? 그리고 도로국에서는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통 분야에서 도로는 기조실 사업에서는 빼겠다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예.

○**김희정 위원**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도로국에서 가지고 온 것에는 미리 보는 교통흐름 길예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조실 사업입니까, 도로국 사업입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차관님이 보고 보고를 하는지 와서 얘기를 해 보자고 서류가 와야지 얘기를 할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복이 있어 보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장 허나윤** 디지털도로팀장 허나윤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김희정 위원 그만 얘기합시다. 제가 1페이지부터 따질까요?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세요. 들어봐야지요.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장 허나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이 사업을 명명할 때 저희가 AI응용신속화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사업이다라는 측면에서 AI응용신속화사업 팔호 국토교통이 들어갔고 저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도로의 다양한 AI 기술이라든지 신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사실 국민들 체감도가 높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책 바이어로서 이런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사업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로국에서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서 민간 내비게이션 사와 함께 민관 협력체를 운영하는 등 관련된 정보를 소통하는 업무를 저희 도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 업무와 관련되고 협업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과제안으로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조금 부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왜냐하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10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전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획조정실의 본부기본경비와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은 한 번 더 보류하고 화요일 오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과 다가구매입임대 용자·출자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보류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첨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이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때로는 같이 읽힌다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어떻게 차별성이 있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세부계획을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다음 회의에서 이 AI응용제품 신속화 사업에 대한 의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을 제외하고 수정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확하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된 부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보류사업 2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잠깐 한 말씀……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항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스터디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례나 이런 조사를. 그래서 정부안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

○**소위원장 전용기** 그 건도 보류하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니, 보류는 아니고요.

○**정점식 위원** 일정 부분 증액을……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일정 부분 증액을 해서……

○**정점식 위원** 한 절반 정도 증액을 해서 예결위에서 한번……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조금 증액을 해서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해서……

○**소위원장 전용기** 수용하시는 걸로……

○**정점식 위원** 포항 건.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연결통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55페이지 3번입니다. 3번에 포항역 선상 연결통로 부분인데, 이것은 83억 7500인데 절반 정도 한번 반영을 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게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로 저희가 정부안으로 의견을, 아까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일부 수용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차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흥IC 구간은 검토가 아직 안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시흥IC 연결 확장 타당성 및 설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스터디가 덜 된 부분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것은 저희가 다음 전체회의 전에, 어차피 회의가 끝나야

되니까 전체회의 전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때 또 논의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이건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건태 위원 예.

○소위원장 전용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면 합의가 된 부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보류사업 2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사업 2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합의가 쉽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요청드린 것처럼 세부계획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18일 화요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8일 오전 중에 예산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사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의원실에 설명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대의견도 위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 ○출석 위원(12인)

김도읍 김종양 김희정 손명수 안태준 윤종오 이건태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 청가 위원(1인)

염태영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염정희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정책기획관 이상일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임시회 의록